

삼성문화재단 50주년 기념  
Leeum '한국건축예찬' 전

# 전통 사찰 건축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구본창 작가의 '통도사'. 작가는 통도사의 사계를 담기 위해 매일 같은 곳에 올랐다.

삼성미술관 리움 제공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명언을 남겼다. 오래된 사찰, 궁궐과 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 긴 세월이 지났지만 이들 문화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다. 낡은 건축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열과 정성이 담겨 내려온다.

이런 천년의 지혜는 오늘날 일상적 거리를 채우는 현대건축물에서 만날 수 없는 가치로 다가온다. 그렇기에 우리네 옛 건축을 되돌아보는 일은 옛 것과 새 것의 조화, 지속가능한 공간을 위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정신세계, 우주관과 세계관을 '전통건축'을 통해 만나는 전시전이 마련된다. 삼성문화재단이 5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한국건축예찬-땅의 깨달음' 전이다. 이 전시전은 12월 19일부터 2016년 2월 6일까지 용산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삼성문화재단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연말에 출간되는 전통건축 사진집에서 출발했다. 주명덕·배병우·구본창 등 6명의 현대 사진작가들이 해인사·불국사·통도사·종묘·창덕궁·소쇄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건축 10곳의 모습을 2년에 걸쳐 찍었다.

현대사진가들의 사진작품 외에도 고미술, 고지도, 모형, 디지털 미디어 등 다매체로 펼쳐지는 대규모 전시다. 불교사찰과 유교문화를 반영하는 왕과 왕실의 사당인 종묘를 '침묵과 장엄의 세계'라는 주제로 엮어 종교적, 정신적 세계관과 연관시켰다. 궁궐과 성곽, 관아건축을 포함시켜 '터의 경영, 질서의 세계', 서원과 정원, 민가를 하나로 해 '살과 어울림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소개한다.

이 전시전의 백미는 전통사찰을 소개하는 2부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왕족 및 귀족세력은 불국토를 실현코자 하는 의지로 천년고찰의 화려함과 장엄미를 만들어냈다. 법보사찰 해인사, 불보사찰 통도사, 오랜 선방이자 수련도량으로 유명한 선암사의 비경이 주명덕, 구본창, 배병우 작가의 대형 사진에 담겼다.

대개 산에 위치한 사찰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의 전경 사진을 크게 배치하고, 사찰 내부의 건축적 구조와 세부는 모니터 영상으로 보여준다. 1년여에 걸쳐 사찰의 사계를 담았으며 주명덕 작가의 경우 성철 스님 생전부터 20년 이상 촬영해온 해인사의 속살을 공개한다. 그는 성철 스님 생전에도 해인사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던 이로 알려져

## 국내 대표 사진작가 6명이 2년간 촬영

해인사·통도사·선암사 비경 소개

천년고찰의 화려함·장엄함 담아내

사찰 입체지형도와 부조 모형도 눈길



주명덕 작가의 '해인사'

있다. 해인사의 외관과 가람 풍경,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같은 내부를 비춘 그의 사진 곁에는 18세기 김윤겸이 그린 <영남기행화첩> 속 해인사 전경도 전시돼 있다.

불국사는 문화재 전문 서헌강 작가가 찍었다. 입구와 전각, 사찰 내부 디테일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번 전시의 협력큐레이터로 활동한 전봉희 서울대 건축과 교수는 산지사찰과 평지사찰의 특성을 각각 드러내는 해인사와 불국사의 입체 지형도와 부조 모형을 만들어 소개했다.

구본창 작가는 진신사리가 모셔져 삼보사찰 중 하나

나로 꼽히는 통도사를 답사하며 사계절을 담아냈다. 배병우는 사찰의 원형이 잘 보존된 선암사를 흑백으로 담담하게 보여줬다. 흥매화가 핀 담장과 절의 모습의 따뜻하다.

이 밖에 '차마고도'로 잘 알려진 박종우 감독은 종묘의 침묵과 장엄함을 5분짜리 영상으로 담아냈다. 길이만 100미터가 넘는 종묘의 웅장함, 전경으로 인한 화제로 수차례 중건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간성, 19칸 49명의 신위가 모셔진 상징성, 왕실 제례 문화가 3채널 스크린 속에 표현돼 있다.

이와 함께 전시회는 3D 스캔 건축 영상물을 각 건

축물의 배치도와 함께 연출하고, 일부 사진들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영상 투사해 관람객의 시각적 경험을 극대화한다.

지난 2013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신라' 특별전에 선보였던 석굴암 축소 과정 영상을 더욱 발전시켜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실감나는 영상을 추가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 코너로 '유동보당'이나 '금동풍탁', '유두토성', '아미타설법도' 등 사찰이나 건축 관련 유물도 보여준다.

특히 '금동대탑'의 3D 복원 과정은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3D 스캔 방식으로 이 탑의 구조와 설계를 보여주면서 9층탑으로의 복원과 함께 금동대탑의 원래 색을 재현했다.

전시는 IT기술과의 결합으로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껴볼 수 있게 한다. 리움미술관이 관객을 위해 마련한 디지털 확대 기술인 DID를 적용해 손으로 터치하며 작품의 이모저모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 삼성전자의 협찬으로 173인치 스마트 LED 사이니지(디지털 게시판) 비디오 월을 비롯해, 95인치 대형 TV화면을 통해 사진가들이 담아낸 전통 건축의 미를 현장에서 보듯 감상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부처님꽃' 생전예수재 장엄지화 한눈에

천태종 '석용스님 특별전' 12월 2~7일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서



영산재 장엄(전통지화) 이수자인 석용 스님

생전예수재 장엄 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석용 스님의 특별전이 마련됐다. 천태종(총무원장 춘광)은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 본전시장에서 석용 스님의 한국전통지화 특별전 '지치 않는 꽃'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장엄(전통지화) 이수자인 석용 스님(한국전통지화연구회부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생전예수재 장엄과 한국전통지화'를 주제로 지화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1589년 감로명화에 나타난 꽃을 재현한 작품을 비롯, 1900년대 난동 등 생전예수재에 장엄되는 다양한 지화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치자·양파깍질·강화(노란색), 소목·홍화(빨간색), 장녹(꽃분홍) 등 천연 염료로 색을 낸 모란, 작약, 연화, 국화 등 18가지 지화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12월 4일부터 6일까지는 오후 2시마다 법고무 특별공연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오후 2시 30분에는 석용 스님의 지도로 전통지화 체험의 시간도 마련된다.

석용 스님은 "생전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선업을 쌓는 의식인 생전예수재의 장엄 지화를 선보여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라면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인 꽃을 전통문화인 지화의 진수로 향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전통지화연구회 부회장 이상장 춘광 스님(천태

종 총무원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통공예 가운데 잊혀져가는 한국전통지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특히 생전예수재 장엄을 통해 불교문화로서 면면히 이어오는 전통지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라면서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 BBS불교방송 신규프로그램 4편 선보여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등

BBS불교방송(사장 전상신)이 11월 23일부터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 '선타 스님의 달마어록 강의', '조성태 박사의 생진대로 건강특목',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등 TV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리셋 받고 등글게' 오후 3시) 진행자 월호 스님이 '월호 스님의 능엄경 강의' (화 오후 5시)로 불자들과 만난다. 월호 스님은 부처님과 아난의 대화를 담고 있는 능엄경을 쉽게 풀어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불교신행법을 제시한다.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대사의 어록에 담긴 선지식의 지혜를 되짚어 보는 '선타 스님 달마어록 강의' (화 낮 12시)는 오랫동안 달마대사를 연구해온 선타 스님(안양 선우정사 주지)이 불자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오전 11시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에서 한의학 상담을 진행하는 조성태 박사도 BBS-TV 프로그램 '조성태 박사의 생진대로 건강특목' (수 낮 12시)으로 얼굴의 특징에 따른 건강 관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친숙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학자로 유명한 우승택 교수가 들려주는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화 오전 8시 30분)는 약사경의 44개 서원이야기를 우리의 생활과 접목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BBS불교방송은 "치유와 존중의 BBS TV와 라디오"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워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하나씩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마하연여행사

###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즘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즘문의
스리랑카 8일	요즘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즘문의
미얀마 6일	요즘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	요즘문의

##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출발

### Myanmar

## 선불 선량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이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디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클루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몽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쉬라바스티-클루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 티베트/부탄

티베트 6일  
성도-리싸-암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베트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장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베트 9일  
성도-문전-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펙 6일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권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